
DB컨설팅 분과위원회 18차 정기회의 결과

- ▣ 일 시 : 2013. 6. 26 (수) 11:00
- ▣ 장 소 :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대회의실

목 차

I. 개요	1
II. 주요 논의 결과	1
1. 데이터거버넌스포럼 연계 행사 추진	1
2. 하반기 KoDB 주관 행사 참여 독려	2
3. 정보화 사업 발주정보 제공	2
4. 2013년 DB산업 분류체계 개선	3
III. 향후일정	3

I. 개요

- 일 시 : 2013년 6월 26일 (수), 11:00~12:00
- 장 소 :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대회의실
- 참석자 : 참석자(17명)
 - 운영회원사: 양영진 대표(아인스에스엔씨), 이수철 대표(데이터투데이테크놀로지), 조광원 대표(비투엔컨설팅), 이진우 부사장(투이컨설팅)
 - 일반회원사: 황명호 본부장(교보정보통신), 최인규 이사(씨퀵로), 김영남 부장(아이티쓰리), 엄승용 상무, 박용한 이사(이상 ITEG), 이종화 대표(트루데이타)
 - 특별 회원: 이춘열 교수(국민대학교), 이정우 교수(연세대학교)
 - 사 무 국: 서강수 원장, 이창한 실장, 김권식 팀장, 김관택 수석, 김윤기 선임(이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)

II. 주요 논의 결과

1 데이터거버넌스(DaGo)포럼 연계 행사 추진

가. 추진현황

- 국민연금공단 벤치마킹 행사, “빅데이터 시대,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와 전략” 세미나 등 DaGo포럼 연계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목적인 포럼과의 소통 채널 구축으로써의 효과는 미비
- 포럼회장단(기관담당자)과 분과회원사(기업)의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선 대규모 행사보다는 외부 청중이 제한된 소규모 세미나 추진이 바람직하나 적절한 장소 대관이 쉽지 않음

나. 향후 추진 계획

- 공공기관 또는 대학의 세미나실 등의 장소를 물색하여 소규모 포럼 연계 행사를 11월중 추진

2 하반기 KoDB 주관 행사 참여 독려

가. 2013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

-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DB그랜드컨퍼런스는 1,8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데이터베이스 행사
- 분과 회원사는 주제발표 참여, 기업부스 운영, 발표자료집 광고, 경품협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 가능

나. 2013년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

- 고품질 데이터베이스(DB)를 실현하여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(기업)을 발굴·전파하여 DB 품질관리 인식 확산
- 시상식은 2013년 11월 28일 팔레스 호텔에서 'DB인의 밤' 행사 시 개최 예정

3 정보화 사업 발주정보 제공

가. 추진현황

- 작년도 28건, 금년 8건 등 총 36건의 사업 발주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실제 이를 통해 사업 입찰 및 수주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음
- 국내 IT서비스 산업 특성상 발주공고가 압박한 시기에 참여하여 사업 수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

나. 향후 추진 계획

-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꾸준한 사업 기회의 제공을 위해 현행(주 1회 발송)을 유지

4 2013년 DB산업 분류체계 개선

가. 분류체계 현안에 관한 의견

- 전체적인 분류 항목의 수준(depth)이 일부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.
 - 'DW', 'BI' 등의 항목은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'데이터 연계', '데이터 프리젠테이션' 등으로 변경이 필요

나. DB컨설팅 영역 개선안에 관한 의견

- 'DW·BI' 항목의 변경안 '데이터 분석'은 빅데이터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통적 'DW·BI'사업과 최근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구별 되어야 함
- DB솔루션의 분류체계(안)에서 'NoSQL', 'Hadoop' 과 같이 기술요소에 따라 분류되어있는 것은 DB컨설팅 분야에서 불필요하며, 하나의 '빅데이터' 관련 항목이 필요
- 'ECM', 'KMS' 분야는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, '분류체계'의 개선이 목적인만큼 기존 존재하는 분류항목의 삭제는 불필요

III. 향후일정

- DBIA 19차 DB컨설팅분과 정기회의
 - 일시: 2013년 9월 5일 (목요일)
 - 장소: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대회의실